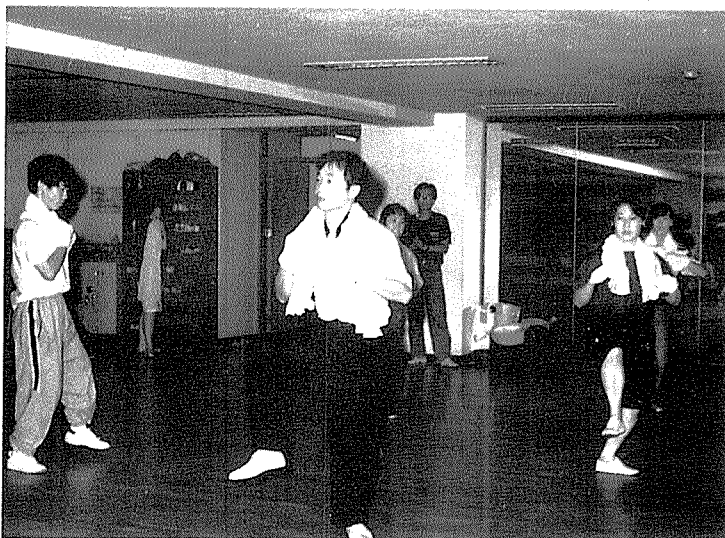


# 건강을 지키는 현장

“우리 문화를 배우며  
건강을 지킨다.”

봉산탈춤을 배우는 직장인 모임 <sup>6</sup> 달웁지기



우리 문화에 대한 애착이 점차로 삭아 들어가고 있는 요즘,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아마추어 모임이 눈길을 끈다.

봉산탈춤을 배우고, 이를 통해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회원 모두가 직장인이라는 악조건(?) 가운데서도 6년동안을 쉼없이 이어져온, 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달웁지기.”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한 어느 문학작가의 말처럼 우리 안에서, 세계 속에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어깨를 들썩이는 “달웁지기”를 찾아가 봤다.(한국일보사 문화센터 605호 건강교실)

# 건강을 지키는 현장

## ◦ 탈을 지키는 사람들 “달嬴지기”

“덩다기 덩다기 얼쑤, 덩다기 덩다기 얼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면, 한국일보사 문화센터 605호실은 흥겨운 장고가락에 맞추어 봉산탈춤을 추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차 보는 사람들의 어깨를 절로 움직이게 한다.

외래문화가 물밀듯 밀려들어와 우리 문화를 좀먹어가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우리 것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심신단련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인 “달嬴지기”

“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달嬴지기”는 회원들 대부분이 일반 직장인들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후끈 달아오르는 듯하다.

## ◦ 21세 청년부터 55세의 아저씨까지

『저희 모임은 '8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흥사단에서 탈춤강습을 받던 사람들 중 우리 것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13명이 모여서 “달嬴지기”를 만들었죠. 그중 7명이 아직도 남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달嬴지기의 창단 멤버 중의 한사람인 이후자씨(37세, 원효전화국 근무)의 이야기다.

가장 젊은 21세의 청년부터, 55세의 아저씨까지의 우리나라 사람 40명이 달嬴지기의 현재 회원.

## ◦ 2년에 1회씩 정기공연도 갖는다

『저희는 매주 1회 정기모임을 갖는 것 외에, 월 1회씩 1박2일로 야유회를 갑니다. 그때는 봉산탈춤에 들어가는 소리와 춤사위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우리 것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2년에 1회씩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88년에는 어린이대 공원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향군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지요.』라는 이후자씨는, 『그외에, 저희가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2회이상 보육원을 방문합니다.』라고 달嬴지기의 활동은 소개한다.

달嬴지기는 매주 목요일 7시부터 한국일보사 문화센터에서 강습회를 연다.

# 건강을 지키는 현장

## • 2~3개월만 탈춤을 추면 건강 실감

달위지기의 역사와 함께 해온 또 한사람인, 강사 장준석씨(39세, 봉산탈춤보존회 이수1기)는, 『탈춤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구력이 생기고 폐활량이 커질 뿐 아니라, 이런 모임을 통해 사교성이 좋아져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요. 요즘 에어로빅이 건강운동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탈춤은 그보다 더 훌륭한 건강운동이죠. 2~3개월만 하고나서 계단을 오르내려 보면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탈춤의 건강 측면의 장점을 이야기한다.

1년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위해 조기축구를 해오던 강홍주씨(55세, 상업). 달위지기의 최연장자인 그는 『잠실 놀이마당에서 탈춤추는 것을 보고 흥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엔 탈이 갖는 매력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또 아들, 딸 같은 젊은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좋아서 그만 둘 수가 없군요.』라고 탈춤 예찬론을 펴면서 환하게 웃는다.

탈춤을 오래하면 지구력·폐활량이 증가하고 사교성도 높아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장준석씨·봉산탈춤보존회 이수1기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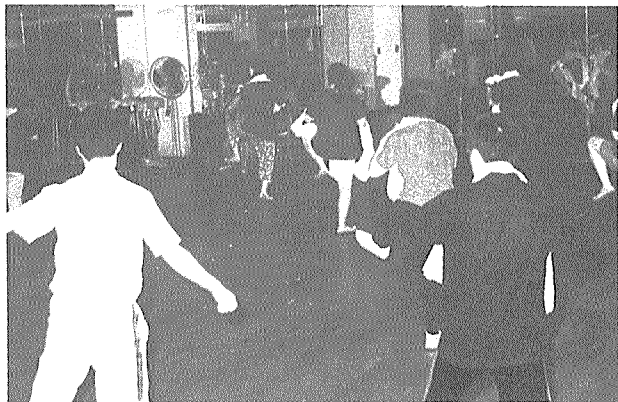


## • 한국일보사 문화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강습

달위지기의 회원이 되려면 우선 3개월간 강습을 받아야 한다. 장소는 한국일보 문화센터 605호 건강교실이다. 이 강습이 끝나면 다시 3개월간 준회원으로서 유예기간을 거친 뒤 비로소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건강을 지키는 현장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고 세계에 알리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할 일이 아닐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굳이 내세우는 이유는, 우리 것에 대한 꾸준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달임지기”들은 이야기한다. 처음 3개월의 강습비는 40,000원이고 정회원 입회비는 10,000원, 그리고 정회원의 회비는 15,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일보사 문화센터나 이후자씨(703-1200, 704-1200)에게 문의하면 된다.

## ◦ 주부건강에도 탈춤이 최고

현재, 봉산탈춤을 하는 모임은 서울에만 7개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부반”이다. 장준석씨에 따르면, 주 2~3회 정도만 하면 주부 건강에는 최상급이란다. 강남구 삼성동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내의 봉산탈춤보존회(566-6356, 7818)에서 11시 30분~13시(기초), 10시~1시30분(중급)에 각각 강습회를 열고 있다.

## ◦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자

점차로 우리 문화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우리 문화의 한부분인 봉산탈춤을 배우고, 지켜나가겠다는 달임지기의 의지는 이제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내년 6월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열을 심어주기 위해 해외공연을 이들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것을 세계에 심고자하는 탈지기 “달임지기”의 의지가 우리 젊은이들 가슴깊이 자리하기를 바라고 싶다. 77